병오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신도님의 각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백중(우란분절)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인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제하기 위해, 하안거를 마친 스님들께 지극한 정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기도하여 어머니를 극락세계로 인도한 '우란분경'의 효행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기도는 조상님을 천도하는 자리인 동시에, 나 자신과 후손들이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무량한 복덕을 짓는 최고의 복밭福田입니다. 속리산 大법주사에서는 다가오는 백중을 맞이하여
선망 부모 및 조상 영가, 그리고 법계의 모든 고혼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신도님들께서는 이번 백중기도에
지극한 마음으로 동참하시어 큰 공덕의 길을 열어 가정이 두루 평안하고 자손들의 앞길을
활짝 열며 일체인연 영가님들이 극락정토에서 상품상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49재 일정

입재 : 7월 10일 금요일 〈법문: 주지스님〉
초재 : 7월 16일 목요일 〈법문: 진천스님〉
2재 : 7월 23일 목요일 〈법문: 무문스님〉
3재 : 7월 30일 목요일 〈법문: 석담스님〉
4재 : 8월 6일 목요일 〈법문: 원경스님〉
5재 : 8월 13일 목요일 〈법문: 노현스님〉
6재 : 8월 20일 목요일 〈법문: 현진스님〉
회향 : 8월 27일 목요일 〈법문: 주지스님〉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위패비 2만원 / 영가기도비 3만원(한가족 영가축원)
(49일간 영가님을 위해 연화백등을 밝혀드립니다)

※원활한 법요식 준비와 위패 작성을 위해 가급적 입재일 전에 접수부탁드립니다.

※ 불보살님과 영가님을 위해 각 재일(재를 지내는 날)마다 정성껏 공양(떡, 과일, 공양미) 올리실 분 설판동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안내** : 大법주사 원주실 043) 543-4755 / 010-6732-0133(문자접수)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6 | 7

무착無着 문희文喜 선사 (1)



당나라 때
무착문희無着文喜(820 ~ 900) 선사는
문수보살의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남쪽 항주
에서부터 북쪽의 오대산까지 오체투지의
절을 하며 갔다.
그리고 오대산 중턱의 금강굴에서
손수 밥을 해 먹으며 문수보살을
친견親見하고자 열심히 수행을 했다.

하루는 식량이 떨어져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양식을 탁발해 올라오다가 소를 거꾸로 타고 가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범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기도 모르게 뒤를 따르게 되었다.
한참을 뒤쫓아 가다 보니 전혀 보지 못했던 웅장한 절 한 채가 나타났다.
노인이 문 앞에 서서 "균제야! " 하고 부르니 한 동자가 뛰어나와 소고삐를 잡아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 따라 들어가 노인에게 인사를 드렸더니, 동자가 아주 향기로운 차를 한 잔 내왔다.
노인이 묻기를 "자네는 오대산에 무엇하러 왔는가?"
"저는 문수보살을 친견하여 지혜를 얻고자 찾아왔습니다."
"자네가 가히 문수를 만날 수 있을까? 자네 살던 절에는 대중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300여 명 되는 대중이 경전도 읽고 계율도 익히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떠한지요?"
"전삼삼 후삼삼前三三 後三三이요, 용과 뱀이 뒤섞여 산다네."(龍蛇混雜 凡聖交參)
무착은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어느새 밖은 어두워져서 무착은 노인에게 하룻밤 쉬어갈 것을 청하였더니 "애착이 남아 있는 사람은 이곳에서 자고 갈 수 없네." 하고는 동자에게 배웅하게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어둑해진 길가에 나와서 무착은 동자에게 물었다.
"아까 노인에게 이곳 대중의 수효를 물었더니 전삼삼 후삼삼이라고 하시던데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물으니, 동자가 큰소리로 "무착아!" 하고 부르니 엉겁결에 "네" 하고 대답하자, "그 수효가 얼마나 되는고?" 하며 동자가 다그쳐 묻는 것이었다. 무착은 또다시 말문이 막혀 동자를 쳐다보며 "이 절 이름은 무엇입니까?"
"반야사般若寺라고 합니다." 하며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니 웅장하던 절은 금시에 간 곳이 없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동자도 사라지고 없는데, 허공에서 한 구절 게송이 들려오는 것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6 7 | 통권 414호



2 **벽화이야기** 무착 문희 선사 (1)
4 **이달의 법문** 우란분절 백중기도, 효의 실천과 깨어있는 참회 大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
6 **주지스님 법문**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처럼 정덕 스님
8 **수행여화**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현진 스님
10 **경전구절산책** 안거(varsika)의 유래와 전통 원경 스님
13 **인도 건축미술 순례** 일로향각一爐香閣 안필섭
16 **칠월칠석 기도안내**
17 **수능100일 특별기도 안내**
18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19 **나한도량 성지순례안내 / 大법주사 행사일정**
20 **大법주사 소식 / 말사소식**
21 **지장재일기도 / 광명진언기도 / 초하루신중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미륵재일기도 / 생일불공**
22 **大법주사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안내**
23 **승려복지 후원 안내**
24 **병오년 백중49일 특별기도안내**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70(단기4359)년 7월호 통권 414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보은 라 00002)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덕 / 주간 · 현진 / 편집인 · 정덕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大법주사

우란분절 백중기도, 효의 실천과 깨어있는 참회

지명대종사 大법주사 조실



산천에 신록이 우거지고 대지가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오르는 계절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 생명력을 뿜어내며 뜨겁게 타오르지만,
우리 불자들은 탐진치貪瞋癡 삼독심三毒心으로 인해
타오르는 마음의 불길을 자기 성찰과 자비의 정진으로
꺼야 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불기 2570년 우란분절盂蘭盆節을 맞이하여,
大법주사 사부대중은 선망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백중 49일 특별기도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백중기도는 단순한 재齋의 형식을 넘어서
나를 있게 한 조상님들의 은혜를 지극한 효심으로 되새기고,
내 안의 묵은 업장을 닦아내고 정진을 하겠다는 수행자인
불자들 스스로와의 약속입니다.
우란분절 백중은 부처님의 십대제자 중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 청제부인을
구하기 위해 스님들의 하안거 해제일에 스님들께
지극한 공양을 올리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여
마침내 어머니를 구제하셨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이 우란분절의 유래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지극한 효심과 정성은 지옥의 문도 열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에게 구원의 등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엄격히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조상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억하고 있는가?
내 안의 삼독심을 과연 백중기도의 청정한 불길로 녹여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영가의 극락왕생만을 구하는 방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당 앞 목어木魚를 보십시오. 물고기가 밤낮으로 눈을 뜨고 잠들지 않듯이,
우리도 49일 기도 기간 동안 한순간도 깨어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올리는 매 순간순간이 내 마음의 눈을 뜨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눈을 감으면 어느새 아집과 집착의 어둠이 우리를 덮치고,
습관이 만든 생각으로 방생과 참회를 흉내 내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정진의 자리로 돌려놓는 그 끈기,
내 안의 무명無明을 살피는 그 정성이 결국 낙숫물이 바위를 뚫듯 견고한 업장의 벽을 무너뜨립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유훈으로 남기신 "자등명 법등명自燈明 法燈明"의 가르침은 이번 백중기도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의 화려한 의식이나 다른 이의 평판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자기 자신의 청정한 본성과 부처님의 올바른 법만을 등불로 삼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백 가지 재물을 올린다 한들 그것은 밖으로 베푸는
화려한 잔치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명한 하늘의 태양이 온 누리를 차별 없이 비추듯, 부처님의 자비 광명은 이미 우리 가슴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의 구름으로 그 빛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조상님께 올리는 공양과 더불어, 내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을 내어야 합니다. 목련존자가 대중 스님들께 공양을 올림으로써
어머니를 구했듯이,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웃을 향한 이타적인 보시와 나눔을 실천할 때
백중기도의 공덕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고, 내려놓아야 영가도 나도 비로소
해탈의 자유를 얻는 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가 생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해탈 열반의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속리산의 푸르름이 날로 짙어지듯이, 大법주사 사부대중 여러분의 신심과 원력도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의 길을 따라,
늘 깨어있는 지혜와 쉼 없는 정진으로 일상의 모든 고통과 장애를 넘어서는 복된 인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무량한 가피가 충만하고,
이번 백중 49일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심은 자비의 씨앗이 마침내 깨달음의 꽃으로 만개하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정진하십시오. 마음을 닦고 조상의 은혜를 갚는 길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오늘 올리는 지극한 기도가 선망조상과 우리 모두를 불국토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지스님 법문

진흙 속에 피어난 연꽃처럼

정덕 스님 大법주사 주지

연꽃은 또 '화과동시華果同時'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물은 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를 맺지만,
연꽃은 꽃이 피어날 때 이미 그 속에 연밥(열매)을 품고 있지요. 이는 모든 원인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因果의 도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는 한 생각, 한 행동이 곧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행위는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한 씨앗일 뿐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고귀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뜨거운 햇살이 대지를 가득 채우는 여름 한가운데에 들어섰습니다.
짙푸른 녹음과 시원하게 쏟아지는 여름비 속에서
우리는 대자연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낍니다.
현재 속리산 大법주사 도량을 거닐다 보면, 곳곳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도반이 있습니다. 바로 화분 가득 피어난 연꽃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꽃이지요.
경전에서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 하여, 진흙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늘 맑고 깨끗한 본성을 유지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흡사 진흙탕과도 같습니다. 갈등과 스트레스,
그리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三毒의 불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변의 환경 탓을 하고, 때로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마음의 평정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꽃은 자신이 뿌리내린 진흙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양분을 얻어 가장 고결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냅니다.
수행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깨달음은 깊은 산속이나 고요한 방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끄럽고 복잡한 일상에서 피워내야 할 꽃이라는 겁니다.
연꽃은 또 '화과동시華果同時'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식물은 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를 맺지만,
연꽃은 꽃이 피어날 때 이미 그 속에 연밥(열매)을 품고 있지요.
이는 모든 원인에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因果의 도리를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내는 한 생각, 한 행동이 곧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고 자비로운 마음을 내는 행위는
먼 미래의 행복을 위한 씨앗일 뿐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마음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고귀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大법주사 사부대중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나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결코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불성佛性이 있습니다. 도량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며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먼저 맑아지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곧 청정한 도량이 됩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마다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가득하여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 석가모니불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주차장 정원석을 허물고 다시 쌓으며 손을 봤다. 그러나 크게 표나는 일이 아니라서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알기 힘들다. 이렇게 살짝살짝 새롭게 손 본 정원 구역들이 많다. 내 잣대에 어긋나는 부분은 언젠가는 다시 고쳐 만드는 것이다. 매년 고치고 바꾸고 다듬고 한 결과들이 모여 지금의 그림이 완성된 것. 일본 절에 가보면 어디 하나 요사스러운 데가 없고 소홀한 곳이 없다. 수시로 수선하고 손질하며 관리하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요즈음 자주 지인들에게 "정원과 얼굴은 살짝 표시 안 나게 가꾸어야 아름다워요"라고 말한다. 정원은 그 집의 인상이라 매만져 주어야 맑은 호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정원으로 조성해 놓고 관리가 소홀하여 오히려 볼품없는 구역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정원은 조성하는 일 못지않게 관리의 기술이 더 요구되는 분야이다.

일본의 어떤 모임에서 부인들이 모두 화려하게 꾸며 입었는데 오직 한 여성만이 생머리에 민낯을 하고 있어서 남자들의 시선이 모두 그쪽으로 쏠렸다. 한 사람이 부인의 검박한 모습을 칭찬하며 화장하지 않았는데도 참으로 아름답다니까 그의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화장 안 한 척 화장하느라고 얼마나 공을 들이는 줄 몰라요!"

이런 미감이 일본 정원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꾸미지만 크게 사치하지 않는 기법. 어쩌면 이것이 실력이고 비결일지 모른다. 손댔는데도 거슬리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출을 하려면 수없는 실패의 반복이 있어야 익힐 수 있다. 여기도 몇 번이나 옮기고 없애고 했는지 모른다. 처음에는 그것이 옳았으나 지금은 틀린 경우도 많다. 그건 변덕이라기보다는 안목의 전환이라 할 수 있겠다. 나보다 높은 수준의 작품을 보고 나면 내 작품의 허점을 알게 되는 것과 같다.

맹자에 '차일시피일시此一時彼一時'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다'는 뜻이다. 이때 한 일과 저 때 한 일이 서로 사정이 다를 수 있다. 그 상황이나 안목이 똑같을 수 없기에 어느 때가 되면 평가와 해석도 달라지는 것이다.

내 다실에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놓여 있다. 이 법어는 17년간 숲속 수행을 끝내고 스스로 내린 어느 수행자의 결론이다. 그가 수행을 중간에 두 번이나 포기하려 했을 때 스승이 따끈한 두유를 주며 "내일 아침에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했단다. 그러니까 현재의 생각이나 관점이 그때 그때 틀릴 수 있다는 의미였다. 왜냐하면 사람의 결심이나 방향은 언제든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행복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다. "행복이 바깥에서 온다고 믿고 싶은 본능은 강력합니다. 화려한 경력을 쌓으면 꽤 우쭐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삶은 디저트만 먹으면서 사는 것과 같아요. 디저트는 눈에 아름답고 달콤하지요. 하지만 생명을 이어나가는 자양분은 제공하지 못합니다."

삶의 과정에서 내 안목이 틀릴 수도 있다는 명제가 늘 필요하다. 어제는 맞을 수도 있었으나 오늘은 틀릴 수도 있는 게 삶의 고개다. 내 생각의 유연성을 훈련하는 것도 어쩌면 수행의 목적일지 모르겠다. 나도 올해는 내 생각이 다 옳고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동의하기로 했다. 그때의 잣대와 기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장비와 인부를 동원하여 정원 입구의 전봇대를 뽑아낸 것도, 돌탑을 며칠에 걸쳐 보강한 것도 눈에 확 들게 표시는 안 나는 일이지만 단행한 것이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표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 요건이다. 고정되거나 박제된 얼굴은 재미없다. 조금씩 주제를 바꾸거나 변화를 주어야 지루하지 않다. 지난 시간을 기록해 놓은 사진을 보면 여기도 달라진 부분이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것이 남아 있지 않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을 때 완성된다.'는 생텍쥐페리의 말은 곱씹어 볼 만한 법어다. 덜어내기의 미학을 압축한 명언이다. 비어있는 공간을 물건으로 장식하기는 쉬워도 이미 채워진 곳을 비워내긴 더 어렵다.

스티브 잡스가 죽는 순간까지 고민한 것이 '심플'이라 들었다. 기술은 복잡하더라도 사용법은 간단하고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의 이치도 그와 동일이다. 단순하게 순수하게 본질을 응시해야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건 절대적 원칙일 것이다. 내 정원 철학도 이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하는 중이다. 자꾸 비워내고 단순화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 나는 어느 때가 되면 그 어떤 물건도 놓이지 않은 그런 텅 빈 선실 하나를 지니고 싶다.

안거(varsika)의 유래와 전통

원경스님 大법주사 강주



> “‘안거’ 제도가 성립하게 된 것은 불교 교단이 만들어진 초기에 발생한 승가의 대외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불교의 삼장三藏 가운데 경장과 율장은 응병여약應病與藥의 원리에 따라(case by case) 성립되었다. 경전은 중생이 번뇌로부터 해탈하는 방법을 설하였고, 계율은 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화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니까 경전과 계율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반드시 문제성 있는 실제의 사례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하나하나 법문이 설해진 것이다.

‘안거’ 제도가 성립하게 된 것은 불교 교단이 만들어진 초기에 발생한 승가의 대외적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빨리어 율장 대품(마하박가)에 석존께서 우기안거雨期安居 규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이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한때 부처님께서 왕사성 죽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아직 우기안거 규정을 정하지 않으셨다. 그리하여 비구들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우기에도 유행遊行하며 전법하고 다니고 있었다. 이를 본 지역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불평했다. ‘어찌하여 석가족 성자의 제자들은 겨울에도 여름에도 우기에도 유행을 다니는가? 실로 외도外道들은 교법은 잘못 설해도 우기에 유행을 삼가하고 있다. 나뭇가지에 집을 짓고 사는 새들도 우기에는 활동을 삼가는데, 어찌하여 석가족 성자의 제자들은 푸른 풀들을 짓밟고, 감관이 하나뿐인 생명을 죽이고, 많은 미세한 목숨을 빼앗는가?’ 비구들은 마을 사람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세존께 아뢰었다. 이에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 온당하고 법도에 맞는 이야기를 베푸신 뒤 “비구들이여, 이제부터 우기에는 안거를 행해야 하느니라.”라고 하셨다.

이때부터 불교 교단에 우안거의 전통이 만들어지게 되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 우기에 안거하는 전통은 부처님 이전에 이미 인도에서 그 원형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기 안거에는 수행자 스스로의 안전과 다른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내포되어 있다. 남방불교권에서 안거 기간동안 비구들은 한곳에 모여 스승과 장로들로부터 가르침을 듣고 수행에 매진한다.

또한 걸식을 할 수 없기에 재가불자들은 승단에 공양을 올리게 되고, 더불어 법문을 듣고 함께 정진하는 외호대중이 되는 것이다. 안거 때 선방에서 정진하는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하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기안거 기간동안 비구들은 어떻게 수행해야 할까.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서로 친한 몇 명의 비구들이 코살라국의 어떤 거주지에서 우안거를 하게 되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친근하게 화합하면서 편안한 우안거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들은 서로 말하지 않고 각자 할 일을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3개월 동안 비구들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3개월간의 우안거를 마친 비구들은 부처님을 찾아뵈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잘 지냈는가? 서로 친근하게 화합하면서 편안한 우안거를 보냈는가?”라고 물으셨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는 ‘어떻게 하면 모두가 서로 친근하게 화합하면서 편안한 우안거를 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하지 않고 각자 할 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상대방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 화합하면서 편안한 우안거를 보냈습니다.”라고 비구들은 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참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편하게 보냈으면서도 편안하게 보낸 것처럼 말한다. 짐승처럼 모여 살았으면서도 편안하게 보냈다고 말한다. 게으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살았으면서도 편안하게 살았다고

말하는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꾸짖으시고 합당한
말씀을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교단의
계율인 '벙어리 수행'을 지켜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우안거를 마친 비구들은 함께 모여 대중에게
서로 물어야 한다."
안거기간 보름에 한 번씩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승가 구성원들은 의무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계경을 낭송하고 잘못을 고백하며 참회하는
포살布薩 의식을 반드시 행해야 한다.
또한 안거 마지막 날에는 안거를 함께 한 이들이
모두 모여 그동안 보고 듣고 의심한 허물을
서로 토로하고 참회하는 자자自恣 의식을
행해야 한다. 수행은 스스로 묵묵히 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스승에게 점검받아야 한다. 또한 대중이 모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살과 자자를 행함으로써
대중의 화합 속에서 편안하게 공부하여 그 성취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경전에서는 수행자 스스로 공부한다고 하지만
대중이 전부 공부시켜 준다고 설하였다.
대중의 화합은 안거 기간동안 모든 대중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석존은 성도 45년이 된 마지막 우안거를
시자인 아난다와 단둘이 하였다. 당시 바이살리에
심한 기근이 들어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웨살리 인근으로 흩어져 각자 머물 곳을
찾으라. 뜻이 맞는 가까운 사람끼리 어울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라.
나는 벨루와 마을에서 안거할 것이다."
비구들을 떠나보내고 아난다와 함께 계시는 동안
부처님은 심한 병을 앓으셨다.
부처님은 홀로 지내며 고통을 정신의 힘으로
견디셨다. 이 마지막 안거를 마치고 석존은
아난와 함께 3개월에 걸쳐 생의 마지막 여행을
하게 된다. 결국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 때까지
설한 가르침이 열반경이다.
인도 지역에 따라 우기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안거[음력 4월 15일]와 후안거[음력 5월 15일]를
실정에 맞게 선택하여 행한다.
불교 교단이 성립한 초기에는 우기에도
안거하지 않은 채 전도에 매진하였다.
그러다가 이웃들의 비난과 비구들의 안전을 위해
안거 제도를 만들게 되었다. 동남아시아 불교권에서
우안거 기간동안 탁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
석존 당시에는 안거 기간동안에도 탁발하였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한편 불교가 동으로 전래된
이후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하안거[음력 4.15~7.15]와
동안거[음력 10.15~1.15] 제도가 정착되었다.
혹한기와 혹서기에 비구들이 선방에 모여 스스로
공부에 매진하는 안거를 두 번 실시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공부를 두 배로 하는 만큼 결과도
그에 맞게 두 배로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공부한 그 힘으로 대중을 교화하는 포교에도
더욱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거는 출가한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재가불자들도 안거 기간 근신하며 함께 정진해야
한다. 그리고 승단에 대중공양을 올리면서
스님들로부터 법문을 듣고, 이를 계기로 자신의 수행을
점검하고 공부에 정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일로향각一爐香閣

안필섭 보살사 불학연구원장



마을에서 만난 인도코뿔소

네팔이라고 하면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의 존재
때문인지 험준한 산악으로 이루어진 고원지대만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생
각이다. 네팔을 남북으로 길게 잘라 보면 북쪽은 준
엄한 산악지역인 반면, 남쪽은 광활한 테라이(Terai)
평야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
비니 역시 이 남쪽 평원에 자리하며, 룸비니와 수도
카트만두 사이에는 아열대 기후의 울창한 밀림지대
인 치트완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다. 1984년 유네
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공원은 인도코뿔소, 벵
골호랑이, 늪지악어 등 멸종위기종과 500여 종의 새
들이 살아가는 야생의 보고다. 치트완 밀림을 감싸
안고 흐르는 랍띠(Rapti) 강은 아침마다 짙은 안개를
뿜어내며, 인위적인 건축이 들어서기 이전의 원초적
인 자연이 지닌 성스러운 신비로움을 극대화한다.

룸비니의 숙소 스탭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아
침 일찍 와서 대기 중이던 흰색 차량에 올랐다. 치트
완은 동쪽으로 약 160km 거리로, 청주에서 대구 정
도의 거리다. 한국의 도로 환경이라면 2시간이면 넉
넉하겠지만, 네팔의 인프라로는 보통 4시간이 걸린
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치트완으로 가기 위해 반드
시 넘어야 하는 다운네(Daunne) 고갯길의 확장 공
사가 수 년째 지연되면서, 건기에는 극심한 흙먼지
가, 우기에는 진흙탕과 산사태가 끊이지 않는 악명
높은 병목구간이 되어 있었다.

우리의 순조롭던 여정은 다운네 고갯길에 접어들



카프라 기와집



꾸띠

자마자 최악의 교통 정체에 직면했다. 수많은 차량 틈에 갇혀 2시간 이상 가다서다를 반복해야 했다. 우리가 찾은 2월 초는 건기의 한가운데였기에, 바람이 불 때마다 거대한 흙먼지가 일어 사방 모든 것들의 형체를 지워버렸다. 가려진 시야와 코를 찌르는 먼지 속에서 정신마저 혼미해지자, 마음속에서 끝없는 답답함과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문득 이 짧은 구간의 고단함조차 견디지 못하는 나를 돌아보며, 그 옛날 혜초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이 겪었을 아득한 구법의 길을 생각했다. 목숨을 건 그 길에 비하면 지금의 불편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가. 솟구쳤던 번뇌가 일시에 가라앉으며 마음이 평온해졌다.

다운네 고개를 넘어 울창한 숲들을 통과하니 나라얀띠(Narayanti) 강을 품은 도시 바랏뿌르(Bharatpur)가 나타났고, 다시 넓은 평원을 지나 마침내 치트완 국립공원의 관문인 자갓뿌르(Jagatpur)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다. 200km도 안되는 길이었지만, 장장 7시간이 걸린 대이동이었다. 드디어 도착한 고풍스러운 방갈로 형태의 숙소에 짐을 풀고 매니저의 안내에 따라 인근 원주민들의 마을을 둘러보았다. 담장 없이 작은 집들이 서로 마주 보고 서 있는 풍경 속에서 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가옥 구조였다. 주변의 고운 진흙을 이겨 만든 매끄러운 흙벽 위로 거칠고 투박한 점토 기와인 '카프라(Khapra)'를 촘촘히 포개어 얹은 나지막한 집들은 수행자들이 우기를 피해 머물던 초기 비하라(Vihāra)의 소박한 원형을 재현하듯 서 있었다.

그리고 내 걸음은 마을 한구석, 대나무 울타리 곁에 세워진 기이한 원추형 초가 앞에서 다시 한번 멈추어 섰다. 나뭇가지를 둥글게 엮어 벽을 치고 그 위로 짚을 원뿔 모양으로 두껍게 쌓아 올린 이 원시적인 오두막을 보자 큰 전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초기 경전 속 수행자들이 머물며 정진하던 고대 인도의 '꾸띠(Kuṭi, 오두막)'이자, 후대 불교 건축미술의 성소인 '스뚜빠(Stūpa)'와 '차이따(Chaitya)' 천장 구조의 시원始源이 아니겠는가. 부처님께서 머무시던 간다꾸띠(gandhakūṭi, 一爐香閣)의 원초적 건축 도상이 2,000년도 더 지난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화석처럼 실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서 마침내 이번 일정의 갑작스러운 변경을 감수하면서까지 치트완을 찾은 이유인 인도코뿔소와 조우했다. 철갑 같은 육중한 피부를 두르고 아무 거칠 것도 없다는 듯 마을 길을 걸어가는 코뿔소의 모습은 지극히 비현실적이었다. 운이 좋으면 마을에서 코뿔소를 볼 수도 있다는 현지 글을 보긴 했으나, 실제로 눈앞에서 대면하니 경이로움을 표할 길이 없었다. 녀석의 측면을 바라보니, 콧잔등 위로 그리 크지 않은 뿔 하나가 견고하게 솟아 있었다.

초기 불교 경전인 《숫따 니빠따》의 명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에서 '무소의 뿔(Khaggavisāṇa)'은 사방으로 갈라진 여타 동물들의 뿔과 달리, 홀로 우뚝 솟은 인도코뿔소의 단단한 외뿔을 의미한다. 그 외뿔처럼 세속의 소란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홀로 사유하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다. 동네 사람들이 길고양이를 보듯 코뿔소의 등장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경 속에서, 무리를 떠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코뿔소의 외뿔은 내게 그대로 독처獨處하는 수행자를 상징하고 있었다. 그 존재를 마주한 것만으로도 치트완에 온 목적이 달성되어 마음이 한없이 여유로워졌다.

이튿날 아침 일찍 시작된 랍띠 강의 카누 투어에서는 안개 자욱한 수면 위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공작새를 보았고, 이어진 사파리 투어에서는 저 멀리 야생의 코뿔소 무리도 관찰할 수 있었다. 비록 안내인이 말한 벵골호랑이와의 극적인 조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늪지악어 보호시설에서 평생 볼 악어들을 한 번에 대면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이 밀림을 거니는 내내 내 사유는 부처님 당시와 이어졌다.

수많은 제자가 파벌을 나누어 크게 충돌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번잡한 교단을 떠나 코끼리와 원숭이가 시봉하는 깊은 숲, 빠릴레야까(Pālileyyaka)로 들어가 홀로 정진하셨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성한 석조 사원이나 목조 비하라(Vihāra)가 들어서기 이전, 인도의 수행자에게는 이 치트완의 밀림처럼 생명의 질서가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숲 자체가 거대한 원초적 성소聖所이자 아란야(Āraṇya, 수행자가 머무르는 숲)였을 것이다. 인도 초기 석굴 사원들의 기둥과 천장이 거대한 숲의 나무와 줄기를 모방하여 조형된 것 역시 이 원초적 밀림의 신성함을 인공의 공간에 재현하려 했던 열망의 발현이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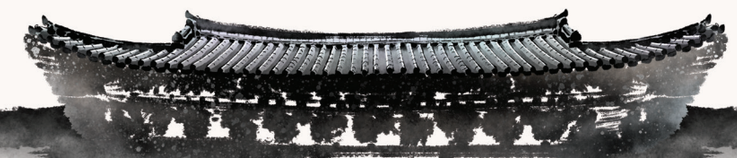
룸비니에서 치트완까지, 어쩌면 가장 편안했을 순례는 여기까지일 것이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여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본격적인 고행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 열반지인 꾸쉬나가르를 시작으로 케사리아, 바이샬리, 날란다 대승원 유적, 라즈기르의 죽림정사, 그리고 깨달음의 성지 보드가야와 초전법륜의 녹야원까지 머나먼 대장정이 남아 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치트완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다. 낮에 보았던 코뿔소의 외뿔처럼, 세속의 격랑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지키며 묵묵히 나의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되겠다는 다짐을 베개 삼아 누우며, 내일부터 펼쳐질 부처님의 본격적인 흔적을 더듬어 갈 채비를 마친다.

칠월칠석 기도안내



음력 칠월칠석은 치성광여래불熾盛光如來佛님과 북두대성 칠원성군七元星君님께서
하강하시어 중생의 고통을 살피고 복덕을 내리시는 지극히 상서로운 날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날 깨끗한 정수를 떠놓고 자손의 무병장수와 가문의 번창을
일심으로 빌어왔습니다. 사찰에서 올리는 칠석기도는
단순히 개인의 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 성현들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지은 업장을 소멸하며 공덕을 쌓는 거룩한 법석法席입니다.
한 조각 지극한 정성은 능히 하늘을 감동시키고 복을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大법주사 칠석맞이 7일 기도에 동참하시어 불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가호로
마음속에 간절한 서원 원만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도일정** : 입재 2026년 8월 13일(음 7월 1일)
회향 2026년 8월 19일(음 7월 7일) 〈칠석날〉
■ **동참보시** : 한가족 3만원



수능 100일 특별기도 안내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꿈을 위해 쉼 없이 학업에 매진해 온
우리 주변의 수험생들들과 간절한 마음으로
뒷바라지하고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을 위해
大법주사에서는 지극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수능 100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大법주사의 모든 불보살님의 가피로 불안과 걱정을 극복하고
지혜와 큰 용기로 고된 노력의 결실이 합격성취로
이어지도록 수험생을 두신 가족과 이웃분들께서
기도입재의 공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 **입 재** : 2026년 8월 12일 수요일
■ **회 향** :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수능일〉

※ 수능당일 大법주사 각 전각의 기도스님들께서
특별축원을 올려주십니다.
■ **동참보시** : 수험생 1인 10만원

23·24·25년 최우수 템플스테이

大 법 주 사

마음을 비우다 쉼 마음을 채우다



당일형
- 108배 및 염주 만들기
- 세조길 걷기 명상

휴식형
- 대법주사 문화재 둘러보기
- 저녁/새벽예불
- 세조길 걷기 명상

평일 체험형
- 108배 및 염주 만들기
- 향기명상 (Aromatherapy)
- 세조길 걷기 명상

주말 체험형
- 선명상 (1박2일, 2박3일)
- 수정봉 걷기 명상
- 스님과 차담

大법주사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

예약 및 문의전화 : 043-544-5656, 010-9528-5655

나한도량 성지순례 안내

나한도량 성지순례는 나한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각자의 서원을 발하여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거룩한 구법求法의 길입니다.
나한님의 영험한 가피를 입고 가정의 평안과 자손창성,
그리고 각자의 서원을 성취하는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2차 성지순례** – 영주 부석사 / 성혈사 (7월 22일 수요일)
- 청주 2대 / 대전 1대 / 보은 1대(속리산포함)
- 청주 1호 불심행 010-5486-7960 청주 2호 보문심 010-5498-5546
  대전 자비심 010-9559-9223 / 보은(속리산)-원주실접수
- **동참보시** – 1인 5만원 (당일승차시 팀장님께)

2026. 7 大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5.17	2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3 19	4 20 광명진언기도
5 21	6 22	7 소서 23	8 24 관음재일	9 25	10 26 백중입재	11 27
12 28	13 29 삼덕큰스님다례	14 6.1 초하루 신중기도입재	15 초복 2	16 3 백중초재 신중기도회향	17 4 제헌절	18 5 다라니독송기도
19 6	20 7	21 8 약사재일	22 9 나한도량 성지순례	23 10 백중 2재	24 11	25 중복 12
26 13 월주대종사다례	27 14	28 15 보름	29 16 미륵재일	30 17 백중 3재 세계유산활용 프로그램 (2차)	31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 대전지역 – 터미널건너편 선샤인호텔 앞 오전 7시 30분, 8시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7시 30분, 8시

●●大법주사 소식







하안거 결제법회







하안거 용상방발표 — 하안거 포살법회






하안거 포살법회 — 교구종회







나한도량 성지순례 — 보은군수당선자면담




신도회 임원진공양



●●말사소식



주지임명(관음정사 대원스님)



주지임명(대성암 현담스님)

지장재일기도 – 7월 2일 목요일, 31일 금요일 오전10시 명부전 〈차량운행-청주지역〉

매달 음력 18일 지장보살님의 원력으로 선망조상과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업장소멸과 살아있는 가족의 안녕을 발원 기도입니다. 현재의 우리 삶을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광명진언기도 – 7월 4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옴 아모카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 파드마 즈바라 프라바를타야 훔" 부처님의 대광명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마음의 빛을 관상하며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지혜를 깨닫는 진언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초하루 신중기도 – 7월 14일 화요일 오전10시 대웅보전 〈차량운행-보은/청주/대전지역〉

매월 음력 초하루부터 3일간 불보살님과 호법 선신들께 정성을 다해 예불공양을 올림으로써 한 달간의 평안과 성취를 기원하는 법회입니다. 매월 새로운 마음으로 선업을 닦고 복을 기원하는 신심의 발로입니다.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 – 7월 18일 토요일 오후1시 대웅보전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의 힘으로 내 안의 모든 번뇌를 씻어내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소중한 서원을 성취하기 위한 진언으로 매월 셋째주 토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륵재일기도 – 7월 29일 수요일 오전10시 미륵전

미래에 오실 미륵부처님의 자비로 현세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통 없는 평화로운 세상(용화세상)이 오기를 염원하는 기도로 매월 음력 16일 봉행됩니다.

생일불공

더없이 귀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고 좋은 기운을 채워 행복한 삶을 기원하기 위해 부처님께 축원올리시어 앞날의 건강과 행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 각 기도 동참보시는 2만원입니다.
- 기도는 전화 ☎ 043)**543-4755** 문자 • 카톡 **010-6732-0133**으로 사전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기도당일은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대법주사 기도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예금주 : 법주사)

大法住寺 미륵반가사유상

개금불사안내

"부처님께 새 옷을 입혀드리는
무량한 공덕의 불사에 인연을 맺으소서"



삼보에 귀의하옵고, 불자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늘 함께하시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大법주사의 정신적 귀의처인 미륵전 내부의 미륵반가사유상은 오랫동안
수많은 중생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기도와 발원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흐르는 세월에 부처님의 금빛 안색이 퇴색되고 도포가 마모되어
금번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부처님의 형상을 새롭게 황금빛으로 장엄하는
개금불사改金佛事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설삼세인과경》에 이르기를, "금생에 몸이 장엄하고 용모가
수려한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불상에 금을 입힌 공덕이요,
의복이 풍족하고 복록이 구족한 이는 부처님을 잘 공양한 인연"이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금불사는 단순한 보수 작업이 아니라,
퇴색된 우리 마음의 자성을 닦아내고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를
우리 삶 속에 새롭게 나투는 가장 성스러운 불사입니다.
부처님 몸에 금 한 조각을 올리는 정성은 법계의 지극한 공덕이 되어,
동참하신 불자님들과 선망조상, 그리고 후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무량복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세생생 삼대의 가족이 공덕의 보탑을 쌓는 이 거룩한 인연에
불자님들의 지극한 서원과 수희 동참을 발원합니다.

동참기간 2026년 **6**월 부터 2027년 불사원만성취시까지

불사동참 1인 1구좌 **10**만원 **동참계좌 : 우체국 120-0001-36241 법주사**

접수안내 大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 010-6732-0133(문자접수)



승보공양은 가장 법다운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승려복지 후원 안내

승보공양 후원은 스님들이 노후나 병고의 걱정 없이 수행과 포교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비, 요양비, 수행비 등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의 관계없이
불자님들의 승보공양은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현재 35분의 교구스님께 신도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승보공양을 모든 공양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습니다.
승보공양은 스님을 가장 스님답게 모시는 불자의 진정한 선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자님들의 정성스러운 승보공양 동참은 불교의 수호와 홍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CMS 1인 1구좌 후원에 신도님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정기후원이 아닌 일시 후원도 가능합니다.)

승보공양 후원동참자

보살사 김완구 김순자 최규연 이시영 김창순 이선호 김규영 민혜숙 최성락 박근식 김태홍
김명숙 백동윤 이은자 서현숙 연용덕 안미영 김길환 김부임 강혜숙

승보공양 동참안내 계좌이체 농협 351-1323-1288-03 (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 법주사)